



##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에너지 황금 시대 예고

Trump heralds golden era for US energy

〈World Nuclear News〉 30 June 2017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연설에서 미국의 국가 에너지 독립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미국의 세계 에너지 제패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대 에너지 프로젝트를 구상 중에 있으며, 그 중 첫 번째로 국가 원자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에너지부(DOE)가 주관한 '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사에서 미국이 세계 에너지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대 프로젝트(six brand-new initiatives)'를 구상하고 있으며 그중 첫 번째는 미국의 원자력산업을 되살리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추구해 온 국가 에너지 자립은 물론 미국이 세계의 에너지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의 곳곳,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미국이 세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주관한 '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사에서 나왔다. 이 행사에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과 릭 페리(Rick Perry) 에너지부장관도 함께 참석했고, 스캇 프루이트(Scott Pruitt) 환경청장은 미국 에너지 정책의 기본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의 패널로 참석을 했다.

### “에너지 제패를 위한 6대 프로젝트 중 첫 번째는 미국의 원자력산업을 되살리고 확대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알 수 없었던 사실이지만, 사실 미국은 에너지 자원이 아주 풍부한 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 에너지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6대 프로젝트(six brand-new initiatives)'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세계 에너지 제패를 위한 6대 프로젝트 중 첫 번째는 미국의 원자력산업을 되살리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현 국가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이 소중한 에너지 자원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머지 다섯 개의 프로젝트는 미국의 석탄발전소와 천연가스, 석유를 해외에 수출하고, 화석연료 개발을 위해 근해 지역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에너지 황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Maria Korsnick 미국원자력협회(NEL)의 회장 겸 CEO는 원자력과 관련하여 미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부가 광범위한 연구에 착수한다는 것에 대하여 미국의 원자력산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미국의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원자력을 부흥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보호되고, 나아가 신형 원자로의 개발과 함께 해외 원전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겠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우리는 다시없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대한 원자력 만들기’

비록 원자력 정책 재검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아직까지 구체성을 띠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주 초에 가진 인터뷰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 특히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침은 확고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나는 원자력 발전 없이는 결코 깨끗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런 나의 생각은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페리 장관은 말했다. 그는 또한 백안관 브리핑을 통해 “환경과 기후 문제를 생각한다면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은 안전하고, 사려 깊으며, 경제적이다. 미국이 이끄는 리더십 하에서 세계는 원자력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우리 미 행정부는 원자력이어야말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특히 신형 원자로와 소형 모듈 원자로와 같은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페리 장관은 현재 미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VC Summer와 Vogtle 등 2기의 원전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면서, 미국이 원자력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DOE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원자력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환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볼 때 원자력은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